

불교학연구회 발족 열린 학문마당 '희망'

역사·사상·어문·예술 전공자 다수 참여

학제간 연구 활성화... 불교학계 새신 기대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언제쯤 국제적인 학술단체를 배출할 수 있을까. 1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불교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불교·어문·예술·역사학자 50여 명이 모여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스님·이하 연구회)를 창립해, 이 같은 바람에 대해 적극적인 기대를 품게 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학회·한국사상학회 등이 국내 불교학 연구를 이끌어 왔지만, 동국대·원광대 등 대학 내 특정 학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연구의 육성을 가리는 토론회나 학제간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소장 학자들의 지적이었다.

30여 년간 국내 불교학계를 이끌어 왔던 한국불교학회의 경우 5백여 명의 학자들이 회원으로 있지만 학회의 '동국대 수성(守成) 논리'로 인해 폐쇄적·권위적·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 연구를

보편적 학문의 지평에서 수행해 나갈 것 △학문적 배경이나 나이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학문마당이 될 것 △다른 불교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발전을 지향해 나갈 것 등을 표방한 연구회는, 학연·수성 논리만 팽배해 있는 현 불교학계를 일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 신임회장 해주 스님은 "열려 있는 학회를 지향하겠다"며 "세계의 불교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국내 불교학계의 인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주 스님은 '교학 분야'뿐만 아니라 '불교역사·사상 분야', '불교어문·예술 분야' 등으로 연구회를 세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고, 불교 관련 타 학회와의 '학대 학술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에서 2백여 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연구회의 이 같은 운영 방침이 학계 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회는,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소속 학회에서 독립해 창립했다. 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종교학회 불교분과는 그동안 '1인 발표 2인 논평' '동·하게 워크숍 열려발표회' 등 기존 불교학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불교학계의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불교분과 소속 교수·학자의 연구 성과를 엮은 <불교학 연구>의 발간·배포하면서 한국종교학회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종교학회 내에서는 순수한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과 소속 교수들의 판단에 따라 '불교학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 대학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한 강사는 "연구회가 명실상부한 한



국 불교학계의 중추 역할을 충분히 해내길 기대한다"며 "작은 힘이나마 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계는 "불교학계의 쌍두마차 시대가 왔다"며 연구회 창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한국불교학회와의 차별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주제와 소속 회원의 중복을 피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장 불교학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창립총회 모습.



부처님 사이버 기행 부처님 공동체 건강센터

조파 린포체의 호스피스 활동

티베트 스님이 인도 보드갸에서 호스피스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인도인들에게 적잖은 효용을 얻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부처님 공동체 건강 센터' (Shakyamuni Buddha Community Health Care Centre)를 클릭하면, 화제의 스님 조파 린포체 (Zopa Rinpoche)를 만날 수 있다.

1991년 부처님의 성지 보드갸를 순례하던 조파 린포체는 죽음에 임박한 거리 유랑자들을 돌보았던 게 계기가 돼 건강 센터를 개원했다. 이 센터는 인도의 비영리 호스피스 재단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훈련은 물론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에도 노력하는 등 인도에서 호스피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조파 린포체(52)는 "우리의 수행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돌보는 것이며, 죽음이 우리가 당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은 일상의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건강 센터는 최근까지 굶주림과 열병 그리고 암 등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인도의 유랑자들을 주로 돌보아 왔는데, 현재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HIV' 서비스를 신설, 에이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사이트는 '문헌 정보'와 '패러다임' 서비스를 개설해 놓고,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 생활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http://www.geocities.com/Athens/Delphi/7733/health-care.html

"현대 물리학은 부처님 손바닥"

양형진 교수 '선과 과학의 평등과 차별' 발표

"현대 물리학의 세계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이지만, 사실 그 진위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심 두터운 물리학자의 친절 한 설명이 담긴 논문이 발표 됐다.

양형진(고려대) 교수는 20일 열린 한국선학회의 열려발표회에서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를 발표하고, "우주의 근본 법칙인 뉴턴의 만유인력은, 사과와 달과 같이 크기와 형상이 다른 모든 사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것은 중도라는 틀에서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과학은 겉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세계의 존재 구조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차고 기우는 달이 동일한 운동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직관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끌어낸 것이 불리학이라면, 서로 상관없



이 보이는 존재들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무한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연기론이라는 보편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 불교이다.

'불생불멸' 역시 미립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고 그 양성자들이 원자핵을 이루고 원자핵이 모여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를 떠나 달리 어디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양 교수는 액체→기체→고체→액체 등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기를 통해 '부중불감'을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 '중도' '불생불멸' '부중불감' 등 부처님의 세계관을 불리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양형진 교수는 "천만 가지 차별의 상이 모두 뚜렷이 존재하면서도 참으로 평등한 자리"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은 몽고 인종 티베트-미얀마계"

조준호씨 '석가모니 인종적 기원' 발표

부처님은 어느 인종에 속할까? 20일 열린 한국불교학회의 제33회 춘계발표대회에서 조준호(동국대 강사) 씨가 '석가모니 부처의 인종적 기원'을 발표하고, 경전을 토대로 이 물음에 해답을 제시해 화제다.

부처님에 대한 인종학적 접근은 주로 서구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도-유라계·드라비다계 등 인도 역사를 이루어 온 인종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초기 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마누(Manu) 법전 등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반박

하고, "부처님은 몽고 인종의 티베트-미얀마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마누 법전과 초기 경전에 나타난 리차비족과 말라족은 석가족과 함께 인도의 토착민인데, <불본행집경>에 나타난 리차비족의 장례 풍습이 티베트의 것과 일치하고 있어 '몽고 인종' 설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례 풍습은 아리아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초기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시타림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시타림은 부처님과 제



자들의 수행처로, 새나 짐승들이 사체의 살을 먹고 난 후 인골이 흩어진 장소였다. 현재에도 이 풍습은 티베트계 부족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 씨는 초기 경전에서 리차비족의 후예로 등장하는 마가다(Magadha)의 니수나가(Sinunaga)와 그의 아들 카라소카(Kalasoka)가 검은 피부였다는 문헌 자료를 찾아냈다. 카라소카는 불교의 제2결집을 지원했던 왕이다.

오종욱 기자

'21세기 문화변동'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6월 9일 오전 10시 한국방송통신대 별관 세미나실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화 변동'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장 세계에서의 과학·예술·철학·종교 등의 변화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에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 (이상하·고려대 강사), '컴퓨터 게임과 영상에 대한 기초 강연' (이만·동국대 교양·태원 스님), '신라시대의 열불술' (김응남·사이오네스 게임스토리 작가), '존재, 공간 그리고 가상공간' (소홍렬·포항공대 교수) 등 14개 논문이 발표된다. (02)797-0585

열불신앙결사의 역사성

한국정토학회는 6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정토사 극락전에서 '열불신앙결사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관(동국대 교수) 스님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열불행자의 믿음'에 대한 기초 강연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초기 정토 신앙' (태원 스님), '신라시대의 열불술' (김응남·사이오네스 게임스토리 작가), '존재, 공간 그리고 가상공간' (소홍렬·포항공대 교수) 등 14개 논문이 발표된다. (0342)723-9798

학술단신

'원효연구' 제4집 발간

원효학회는 <원효학연구> 제4집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원효의 '본업경소 연구'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원효의 중위분별론에 관한 연구' (이만·동국대 교수), '원효의 범방경보살계분사기 분석' (최성열·조선대 교수) 등이 실려있다. 또한 스님 저서의 바른 이해를 위해 '고종목록'과 '참고 목록'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0561)742-9922

진각논문대상 당선자 발표

진각종은 제2회 진각논문대상의 당선자를 발표했다. 총 13편의 논문이 응모된 이번 '진각논문대상'에는 오경후(동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씨의 '범해 각안의 고대 불교사 연구에 관한 검토', 김진우(중국 남경대 철학과 박사과정) 씨의 '위·진나라 시기의 현 학과 반야학의 관계 연구', 이종복(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씨의 '개말라실의 중관사상연구' 등 불교분야에 응모한 논문 3편만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진각종은 10월 중 논문발표회와 시상식을 마련할

동양미술사학회 정기대사

동양미술사학회는 6월 3일 서울 소재 고건축을 대상으로 제1회 정기대사를 실시한다. 조훈철(동국대 박물관 연구원·한국건축사 전공) 씨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대사는 경북공 동 조진정 시대 궁궐의 진면목을 살피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고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 실시되는 동양미술사학회의 정기대사 2000년도 하반기 일정표는 추후 공개된다. (02)2260-3463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처님 말씀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할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운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지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분 신국판 / 값 5,000원
- 김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법문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 계 이야기

일타큰스님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법문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법문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법문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